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인생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사역도 인생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사역의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사역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싶다는 것은, 예수님의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닮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향, 그분의 가치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었던 그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비유: 산을 오르는 인생 vs 사막을 건너는 인생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

1) '정상'을 향해 달리는 목표의 한계

정상에 오르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면, 정상에 올랐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너무 허무합니다. 정상에서의 즐거움을 위해 그 산을 오르는 고통이 너무 큼니다. 목표를 이룬 순간 그 성공의 감격은 잠깐입니다. 목적을 위해 산다는 것은 참 허무합니다.

2) 사막을 건너는 사역으로의 전환

인생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을 바라보며 갑니다. 묵묵히 참고 걸어갑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정상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경험을 참 많이 합니다.

방향이 분명하면 '불편'해도 '불행'하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인생은 '편안'해도 '불행'합니다.

사막을 걷는 것은 목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분명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목표가 보이지 않을 때 필요한 것 - '나침반'과 '은혜'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침반"입니다. 사막을 건너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나침반"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물이 터지는 것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사막은 목적을 향해 가는 고행의 길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동안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현장입니다.

믿음으로 사막을 건너갑시다!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

"...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우리가 사막을 건너는 중에 믿음의 나침반을 보고 걷다 보면, 그곳이 바로 길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옵니다. 사막을 걷다 지치고 쓰러질 때, 오아시스를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며 그 사막 한가운데서 즐거움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막의 신기루를 주의하십시오.

때때로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는 유혹하는 신기루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나침반을 보지 않고 신기루를 따라간다면 인생의 사막을 건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사막을 건너기 위해서는 산을 타는 기술이 아니라, 사막을 건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나침반을 보고 확인해야 합니다.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막에서는 GPS도, 딱딱한 등산화도, 완벽한 차량도 소용이 없습니다. 철저히 준비된 장비와 차량도 자만하는 순간 모래에 빠져버리면 오히려 그 무게 때문에 꼼짝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준비한 것들로 인해 인생의 무력감을 철저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을 오를 때와는 다른 준비입니다. 우리가 무장한 딱딱한 장비들을 한번 내려놓고 방향을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방향이 없는 목적은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변화무쌍한 사막 한가운데서,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방향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사막을 지나가는 순간이 무척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길을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인생의 사막을 멋지게 건너가 봅시다. 인생 사막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보이기를 바랍니다.